

Submission No.: CS09-5354

Session : Concurrent Symposium 9 (Coordinator)

Date & Time, Place : November 19 (Sat), 08:30-10:00, Room 6F-1

Session Title : Basics and Issues of Kidney & Pancreas Transplantation

Background and Effectiveness of KDPI Application

Taiyeon Koo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Republic of Korea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장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의 숫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여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확장범주 기증자는 2002년 미국의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UNOS)에서 이식 신장 생존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나이에 기초를 두고 정립한 개념이다. 이후 이러한 이분법적인 기준이 이식 후 예후를 반영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기증자의 나이, 고혈압 여부, 신기능, 사인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기준인 kidney donor risk index (KDRI) 및 kidney donor profile index 이 개발되었고 2014년부터 실제 kidney allocation system 에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뇌사 기증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동반 질환이 많아지면서 확장범주 기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KONOS 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확장범주 기증자의 정의를 만들었으나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확장범주 기증자 기준은 과거 OPTN/UNOS 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예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2019년 질병관리청 정책용역사업으로 우리나라 뇌사자 신장 이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증자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공여 신장 예후 지표인 Korean KDRI (K-KDRI)와 Korean KDPI (K-KDPI)가 개발되었다. K-KDRI 와 K-KDPI 를 이용한 확장범주 기증자 기준은 2021년 9월부터 실제 뇌사자 신장이식 장기 배분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새로 개발된 K-KDRI 및 K-KDPI 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